

중국지역

■ 中 주식시장, 제 2 증시 시대 출범

-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이하 증감회라 함)는 5 월 18 일 선전증시 내에 중소기업 전용시장 개설을 승인하고 5 월 27 일 정식으로 개장식을 갖게 됨에 따라 중국도 본격적인 제 2 증시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음.
- 중국 증감회는 <선전증권교역소 중소기업 전용시장 설립 실시방안(深圳證券交易所設立中小企業板塊實施方案)>을 제정하였으며 선전증시도 <중소기업 전용시장 교역 특별규정(中小企業板塊交易特別規定)> 등 관련 규정을 잇달아 발표하였음.
- 지난 1990 년과 1991 년 상하이와 선전 2 곳에 증시가 설립된 이후 빠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제 2 증시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.
- 중국은 당초 늦어도 2001 년 말 또는 2002 년 초까지는 기술주 위주의 제 2 증시를 선전(深圳)에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전세계 제 2 시장의 혼조세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설립을 연기해왔음.
- 현재 중국 내륙에는 상하이와 선전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으며 내국인 전용의 A 주 시장과 외국인 전용의 B 주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02 년 12 월부터 QFII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) 제도를 도입하여 A 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.
- 상하이와 선전 증시 외에도 홍콩증권거래소에는 H 株라는 이름으로 상장된 중국주식과 Red Chip 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된 중국에서 활동하는 홍콩내에 설립된 기업이 있음.
- 이번 “중소기업 전용시장”의 정식 출범에 따라 지난 2000 년 9 월부터 중단된 선전증시의 주식공개상장(IPO) 이 재개되었으며 중국 자본시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장기적으로 중국 내 기업의 자본조달 관련 직접금융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루트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.
- 그러나 중국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출범이 기존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규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상장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.

- 중소기업 전용시장에 상장이 가능한 회사는 제 1 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 중 유통주식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 심사요건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국의 금융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일본계 회사인 宁波东睦新材料股份有限公司의 상하이 증시 상장 이후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상당수의 외자기업도 중국증시 상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외국기업의 중국내 상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(문의처 :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@kotra.or.kr)